

「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국내 업사이클 디자인 현황 연구」 착수회의

회의 개요

일시	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10:30~12:00
장소	재단 7층 연구소장실
참석자	[내부4] 강병길 연구소장, 신윤재 센터장, 엄아영 책임, 이명은 선임 [외부1] 오브젝트 이영택 대표
내용	· 연구범위 및 방향 공유 ·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방안 논의

회의 내용

발언자	내용
신윤재	· 국내 업사이클 디자인 현황 연구에 대한 착수 보고임
이영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업사이클 분야에 대한 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사이클은 결과가 아니라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판단 · 이미 연구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대면 인터뷰 20팀, 서면 인터뷰 30팀, 총 50팀 인터뷰 예정임 - 현재 면대면은 10팀 정도 진행되었음. 정밀조사를 통해 현 업계의 통계를 구축 할 예정임 - 업사이클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에 대한 파악 및 유통구조를 파악하고 있음 - 시설내 입점 가능성이 높은 업사이클 디자이너들에게 각 시설별 수요조사를 할 예정임 ·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업사이클 디자인 현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열악하다고 판단 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동하고 있는(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) 디자이너 중에 상당수가 디자인 베이스가 아님 - 결과로 국내 업사이클 디자인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것 같음 · 서울새활용플라자에 대해 현재 업사이클 디자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기대가 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음 - 소재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소재은행에 관심을 보임 - 교육에 대한 요구도 있음
강병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업사이클 분야 규정이 어렵게 현실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흔히들 친환경을 목표로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, 어떤 재료들은 업사이클링에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, 더 많은 폐기물과 환경오염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허다함 - 이영택 대표와 동의: 업사이클은 결과가 아니라 프로세스임. 따라서 업사이클'링'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- 이번 연구를 통해 업사이클이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를 관계자들에게 물어 봐 달라 ·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운영방향에 대해 29일에 열린 국제세미나 전에 프리뷰 회의가 열렸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눔 - 전 세계적으로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례가 없다고 입을 모음 -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임. 국제 레지던시나 국제 전시회 등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임. 어워드의 아이디어도 나눔 - 소재은행, 레지던시, 전시 등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음.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- 선구자적인 역할로 가치 공유 및 홍보, 기업참여 등도 중요하다고 함 ·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업사이클 디자인 분야는 아직도 갈 길이 멀음. 성공적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운영을 위해 국내 현황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 주길 바람